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노년기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년기 활동 유형별 분석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권 미 애

노년기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년기 활동 유형별 분석 -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권 미 애

인 준 서

권 미 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의 활동 유형을 자원봉사 활동과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질문지는 활동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년기 활동 유형으로 분류된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총201명(남성 노인 76명, 36.8%, 여성 노인 125명, 62.2%)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전혀 보상이 없는 무급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경제활동 집단은 총219명(남자127명, 여성 92명, 42.0%)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일정의 수입을 지니는 유급의 경우로 구분되었다. 연구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 가지로 가치관 척도는 김재은(1987), 신수진(1998), Triandis(1995), Trompenaars(1996)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고, 삶의 만족도 척도는 윤진(1982)이 개발한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4.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t-test, 일원변량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및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개인주의 가치관에 비해 집단주의 가치관($M=2.422$, $SD=.310$, 점수 범위 31~93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M=2.255$, $SD=.388$, 점수 범위 20~60)는 중간값 보다

약간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집단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 특징 중 남성 노인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인이며, 종교가 있으며, 독신 노인 집단보다 3세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과거의 직업은 전업주부와 관리직·전문직 직종군에 종사했던 집단이 무직,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직종군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 특징 중 종교가 있는 노인 과 2세대와 부부가구의 가족형태 집단이 3세대와 독신 가족형태의 집단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직업의 경우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종군 집단이 무직의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 직업에서도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직·전문직 직종의 집단이 전문 강사 직종군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집단주의 가치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종교가 있는 경우와 인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의 경우 그리고 인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이 집단주의 가치관이며, 수입과 인지적 건강 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높고, 인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 활동 유형 모두 집단주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통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인 성향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즉 경제활동 집단보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 보다 더 높은 집단적인 가치관이 표현되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노년기 사회활동	5
1) 노년기 사회활동의 이론	5
2) 노년기 사회활동의 유형	8
2. 노년기 사회적 가치관과 유형	15
1) 가치관의 개념	15
2) 노년기 가치관 유형	18
3. 노년기 사회활동 및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	22
1) 노년기 삶의 만족도 개념	22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 사회활동, 가치관, 삶의 만족도	25

Ⅲ. 연구 방법	37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37
2. 용어의 정의	40
3. 조사 도구의 구성과 내용	43
4.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47
5. 자료의 분석 방법	60
Ⅳ. 결과 및 해석	61
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및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	61
2.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증	64
3.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8
Ⅴ. 논의 및 결론	8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 1> 가치관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46
<표 - 2> 삶의 만족도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47
<표 -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51
<표 - 4> 자원봉사활동 유형의 실태	54
<표 - 5> 경제활동 유형의 실태	57
<표 - 6>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 척도의 일반적 경향	62
<표 - 7> 활동 유형별 가치관, 삶의 만족도 차이	64
<표 - 8>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 차이	68
<표 - 9>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 차이	72
<표 - 10>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76
<표 - 11> 경제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80

그 립 목 차

<그림 - 1> 자원봉사 활동 집단의 연구 모형	38
<그림 - 2> 경제활동 집단의 연구 모형	38

I. 서론

1. 문제 제기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진행은 국가와 문화를 막론하고 각 사회가 지닌 이념, 경제, 정치, 문화적 배경 등을 통해 보다 깊은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로 지각하게 되면서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을 의존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양해야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실태 및 효과에 대해 상당수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재 노년기에 해당되는 초기 노인들의 경우 대체로 과거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인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인해 생산적이며, 성공적(적극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대다수는 비록 소득과 관련이 없다 해도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원하며,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감지가 가능한 주관적인 상태로서 시대나 종교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수히 존재하는 가치

관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 지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수균, 2000). 이와 같이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제는 지속적인 관심의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조사 대상은 생활이 열악하고 수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노년기 집단(위험군 노인집단)¹⁾보다 비위험군 노인 집단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두개의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선정은 복지의 수혜자나 관심의 영역이 주로 위험군 노인 집단에 편중되어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의 노인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은 모두 노년기의 사회활동의 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다. 자원봉사활동은 타인 지향적이며, 자아실현에 더욱 부합되는 특성을 지닌 반면, 경제활동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두 활동 유형의 집단간에는 상반되는 특성에 의해 삶의 만족도를 지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 연구의 조사를 실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큰 사회일수록 각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다르므로 인해 세대간 갈등의 폭도 크며, 유교적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

1) 권중돈과 조주현(2000)의 연구에 따르면 독신노인, 질병이 있는 노인, 후기고령 노인, 경제활동 미참여 노인 등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미충족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계층을 말한다.

는 노인 세대는 현대적 가치관의 공존을 경험하게 된다(조성남, 2004; 최인영, 2007). 그러므로 현재의 노인 세대는 평생에 걸쳐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 온 세대이며, 전통적인 가치교육 속에서 성장하여 왔지만 현대적 가치에 도전 받고 있는 이중적 가치체계의 갈등을 갖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활동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함께 한국적 상황, 현재 노년기에 해당되는 특성, 이중적인 가치체계를 경험하는 복합적 특성을 파악하여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비교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년기의 대상자들을 통해 실태와 만족감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예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장년층에게 제안될 모델링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 복지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권장될 수 있는 적합한 활동유형의 기준이 확인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과 현장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노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노년기 관련 연구는 연구 주제나 이론적 틀에 있어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전반적인 노인문제 연구들로 현황을 고찰하고 제한점 및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고, 1980년대 이후 노년기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종합하여 밝혔다. 노년기 가족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방법론적 제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홍달아기, 정은미, 2001).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년기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후속연구의 분석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도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이며, 적극적인 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노년기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둘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자원봉사 활동과 경제활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셋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자원봉사 활동, 경제활동의 배경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되는 내용을 통해 노년기 세대의 사회활동인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활동 유형에 따른 교육적, 정책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사회활동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활동을 설명하는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의 사회학적 개념과 지속적인 역할의 수행에 초점을 맞춘 지속 이론(continuity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유형 분류를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과 유급의 경제활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가지의 활동은 모두 사회활동에 속하며, 다른 세대에서 경험하는 측면과는 다른 관점들이 제기됨으로, 활동 유형별 집단을 중심으로 노년기를 진단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노년기 사회활동의 이론

노년기를 설명하는 수많은 학자와 이론서, 그리고 연장된 노년기의 시간 속에서 과연 노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년기를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비생산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일반적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 노년기의 노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설계하고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자아 개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노인들은 각종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Havighurst, Neugarten, Tobin, 1968), 자아의 긍정적인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들은 노후에 상실한 역할들을 새로운 역할들로 대처하여(윤미혜, 1995; 장인협, 최성재, 2002)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영복, 1991;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 2000; 이금룡, 2002; Atchely, 2001; Hooyman & Kiyak, 1999). 노인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유지할 때 혹은 새로운 사회망을 창조하면서 사회적 역할로부터 분리된 노인들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해 지게 된다(김미혜, 정진경, 2003; Adelman, 1994)고 한다. 또한 건강상의 변화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도 중년과 다름없는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김태현, 2007)는 견해를 보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 노인의 생활만족과 안녕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Herzog, Kahn, Morgan, Jackson, Antonucci, 1989)고 본다. 이 이론은 모든 노인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동 유형과 활동에 내포된 의미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삶의 만족도와 노후 활동 참여의 상관관계는 활동 유형(공식적, 비공식적 혹은 혼자 하

는 활동)에 따라 그리고 노인 개인이 처한 상황(건강,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시사한다(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2006).

이와 같이 활동 이론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지속 이론(continuity theory)은 전 생애를 통한 성장 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인성적 특징에 의한 노년기 대처 및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김미혜, 서혜경, 2002). 즉, 인간은 누구나 평생을 두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지켜 나감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김미혜, 정진경, 2003; 한국노년학회, 2000)하는 성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 모두 중년기의 역할 수행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개인적 성향, 즉, 인성(personality)이나 노년기 이전의 생활 양식(life style)이 노년기 사회적 활동의 여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지속 이론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활발한 사회활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중년기에 수행했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비슷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활동(Hooyman & Kiyak, 1999)임을 강조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년기 삶의 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은퇴를 통해 공식적인 분리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비교적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과 노화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체로 자신의 건강과 능력, 선호 등에 알맞은 활동을 선택하여 새로운 노년기를 적응

해 간다. 결국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스스로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신노년기의 모습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년기 사회활동의 유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2007) 제2조 기본이념²⁾과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³⁾에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취업활동을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시된 법의 내용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경제활동은 노년기에 있어 노인들이 행할 수 있는 사회활동으로 지칭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활동의 형태를 갖춘다고 할 수 있다. 각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 노인복지법(2007) - [제2조 기본이념]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3) 노인복지법(2007) -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년기의 자원봉사 활동

UN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여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인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을 제시하였다. 참여의 원칙은 평생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노인 자신의 취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원칙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이다(박태영, 1999).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자신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하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노년기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결과들이 보고되었다(장인협, 최성재, 2002; Chambr'e, 1984; Payne, 1977; Teaff, 1985).

그리고 최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모델은 '인생에의 활발한 참여'를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 혹은 필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인생의 활발한 참여'는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하부 요소로 구성된다. 생산적 활동은 유급 노동뿐 아니라 비공식적, 무급 노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Rowe & Kahn, 1997, 1998), 어떤 종류의 활동이던 그 활동을 통하여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며 자신이 타인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김주현, 한경혜,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자부심, 만족감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가치성을 회복시키고 유지할 수 있어 아직도 자신이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하고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함으로써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게(이은주, 2005)되는 긍정적 힘의 효과가 자원봉사 활동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는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저조, 활용 기관의 부재도 원인이 되겠지만, 노인의 건강 및 경제수준이 아직 남을 도울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옥희, 1994). 또한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가족주의적, 수동적 성향이 자원봉사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있다(이금룡, 1999).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측면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주현, 한경혜, 2001).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의 능력 수준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무급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개인, 전문 기관의 조직 단체,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이뤄지는 자원봉사의 활동으로 월 1회 이상의 지속적인 과정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러한

활동을 노년기에 하게 되며, 만족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년기의 경제활동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2002)은 서울에 사는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7%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년·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리고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는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으로 '경제참여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OECD는 가능한 많은 세대별 인구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필수적 현상이며, 특히 55-64세 연령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원해도 일을 못하는 현상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은 국내 경제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 모두 공통적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노년층의 경제활동 환경은 헌법4)과는 상이하게 밝히고 있다(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2004).

2002년 11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2008년 3월 2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가 적용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 차별도 금지된다. 이와 같이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다양한 활용을 통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나 현실적인 효과성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연령차별금지는 입법화 되었고, 영국 정부도 EU의 지침에 따라 강제적인 퇴직연령을 없애고 고용과 해고 시 나이에 따른 차별 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2003년 7월에 마련하였다(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2004).

이러한 국내외 관련 법안과 더불어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정생활보다는 경제(직업)생활을 통해 보다 많은 통제감과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허준수, 2002) 신체 능력이 허락되는 한 적극적으로 공적 영역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노인의 심리·정서와 생활만족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혜자, 성명

4)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육, 신윤아, 2003; Havighurst, 197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생계유지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직업을 통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할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혀졌으며(전지원, 2006),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중돈, 조주연, 2000;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 1999; 윤순덕, 2004).

그러나 경제활동을 직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노인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순미, 1998;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 1999), 더욱이 여성 노인은 현재 주부이거나 무직인 경우가 79.1%에 달하였다(심영, 김대년, 조명희, 조영희, 1996). 반면에 곽인숙(1998)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없거나 은퇴한 경우가 40.0%로 과반 수 이상의 노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진 연구도 있다. 대체로 노년층의 취업에 의한 경제활동은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상당히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결과를 보면, 비취업 상태가 69.2%이며, 농·어·축산업 종사자 53.9%, 단순노무 종사자 27.8%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종군에 속하는 고위 임직원은 1.8%, 전문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현, 2007).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인들의 취업형태는 불안정한 취업 직종군에 속하거나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은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여성 28.3%, 남성 50.7%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긴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성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열악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종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는 통계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현황들이 전반적인 국내 상황의 한 일면이므로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으로서 제시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노인들은 사회적 유희인력으로 분리되었고 편안한 노후를 대부분 여가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노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보다 비교적 노인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년기 노인들의 취업 욕구가 크다. 그러므로 각 지역 및 기업 등에서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에 노인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실천안의 하나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참여형 일자리'로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은 신체적 부담이 없는 경로당 강사, 문화재 지킴이, 시험감독관, 환경관리, 급식 도우미 등 월 20~30만원의 소득의 신규 일자리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비교적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데 그 이유는 과하지 않은 가벼운 일자리로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범위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회 참여형 일자리' 라는 취지가 소득보다 노인들의 자긍심에 더욱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지가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노인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조사연구의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함께 노년기의 경제활동을 어떠

한 형태로든 취업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 중 경제적 혜택을 받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제로 1주일에 또는 1개월에 몇 회 정도로 제한하여 고용되어 정기적인 수입의 과정이 있거나, 은퇴 후 새롭게 취업된 경우, 자신의 자영업 등을 통해 일정량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안정적인 취업형태와 소득의 과정이 여타의 연령층과는 다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경제활동의 의미를 정의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사회적 가치관과 유형

1) 가치관의 개념

경제학, 철학 등의 관심사였던 가치의 문제가 사회과학, 특히 사회심리학에서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오래 전이 아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가치관 보다 오히려 태도에 관한 연구가 훨씬 더 관심을 끌며 측정 방법도 가치관에 비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Rokeach⁵⁾, 1973).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5) Rokeach(1973, 1979)의 도구는 최근 개인, 조직, 단체 등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종착적(終着的) 및 도구적(道具的) 가치관으로 각각 18개의 가치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국내에서도 번안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의 하나

1950년 무렵부터 Allport와 Vernon, Lindzey⁶⁾(1931, 1951)의 연구를 필두로 시작되어 최근 Kluckhohn-Strodtbeck⁷⁾(1961)와 Rokeach(1968, 1973, 1979)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 방법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언어적인 반응을 통한 연구로서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① 바람직한, 매력 있는, 인정할 혹은 칭찬할 값어치가 있는 혹은 있게 만드는 어떤 것, ② 존경, 찬양의 감정이나 판단 혹은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 ③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용한 어떤 것 등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Perry(1954)는 가치를 인간의 대상에게 흥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김정일, 이관춘, 2000). 이처럼 관념적인 개념들로 정의된 철학적 측면에서의 가치관은 사회 과학자들에 의해 보다 경험적인 과학적 가치의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자존(利己, 自愛)이란 최상의 감정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김정일, 이관춘, 2000).

따라서 가치관에 대한 개념을 Rokeach(1973)는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 취하는 모든 태도들은 가치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지니는 모든 가치들은 자신을 주변 사회에 적응시키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현실을 분석하게 해 줌으로써 자존이란 최상의 감정을 유지·고양시켜준다.’ 고

6) Allport-Vernon-Lindzey(AVL)에 의해 1931년 처음 제작되고 1951년, 1960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 조사도구가 첫 번째 가치연구 유형으로 한 동안 사용됨

7) Kluckhohn-Strodtbeck(1961)는 인간 본성관, 인간 자연관, 활동관, 대인간관의 4개 지향성으로 분류하여 검사도구 개발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성 혹은 가치관은 개인은 물론 집단과 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에게 가치관은 좋은 삶, 바람직한 삶의 기초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김정일, 이관춘, 2000).

그리고 한국인의 가치관 요소를 살펴본 김철민(1996)은 가치관을 '개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 상태 자체에 관련한 것'과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목적 상태에 관한 가치관으로 분류한 가치 요소들을 다시 몇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개인의 생존과 발전, 개인이 속한 집단의 생존과 유지, 전체 사회의 생존과 통합에 필요한 요건들로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 장(psychological field)은 개인, 집단, 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삶 자체가 그 장을 넓혀 가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 정의된 가치관의 개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각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위한 규범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개인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의 고양을 불러일으키며,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 정서와 삶의 적응을 가능케 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도덕적 기준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상과 개인을 연구하고자 할 때 내면화된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행동, 태도, 정서, 사고 등을 살펴보는 것은 심도 있는 현상의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주기에서 바라보는 노년기의 가치관은 오랜 시간동안 내재적인 경험과 형성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으로 가치관을 활동 형태와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년기 가치관 유형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가치들로서 그 사회의 규범적인 당위나 개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실마리(신수진, 1998)가 되는데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윤명희, 2004; 이기학, 2006). 특히 현재의 노인 세대는 생애주기 과정 동안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 온 세대라도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인 가치교육 속에서 성장하여 왔지만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신세대의 현대적 가치관이 생활 전반에 내재되어 있어 노년기에 급격한 적응과 도전을 받게 되는 이중적 가치관의 갈등적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와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온 가치관

을 노년기에서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응을 위한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지닌다.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은 한국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자연관에서 정복 지향적 자연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두 대립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⁸⁾이 공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기연, 2002; 이기학, 2006). 특히,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이념에 의해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각 개인의 가족주의 이념의 수용 정도에 따라, 또 사회문화적 변화,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집단주의 성향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김기연, 2001; 신수진, 1998).

이와 같이 언급된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집단주의 가치관의 개념을 설명한 Hui와 Triandis(1986)는 7가지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즉, ①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② 물질적인 자원의 공유로서 현대사회에서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주고받고, 빌려주는 행위들이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집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사회적

8) 신수진과 최준식(2002)에 분류에 의하면, 전통적 가치관은 집단주의, 특수주의, 권위주의, 인본주의, 자연수용, 과거지향이며, 현대적 가치관으로는 개인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 자연통제, 현재미래지향으로 각각 6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관계를 유지한다. ③ 비물질적인 자원의 공유는 본질상 유형적이거나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시간과 애정이 비물질 자원으로 발생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로서 강화한다. ④ 사회적 영향에 대한 민감도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집단을 따르는 경향을 뜻한다. 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식과 체면을 중시한다. 집단의 승인을 매우 중시하고 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수치심을 느낀다. ⑥ 결과의 공유는 상호의존을 중시한다. 개인의 행동이 집단 전체에 영향이 미치도록 인간사회는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호관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⑦ 타인의 삶에 대한 관여로서 타인의 성과를 공유하며 타인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주의 가치관은 Waterman(1984)이 4가지의 심리학적 특징을 포함하는 ① 개인 정체성과의 관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한 정체성으로서 true self의 심리학적 개념과 연결된다. 즉 자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한 노력을 뜻하는 Maslow의 자아실현의 개념과, ③ 자신의 삶의 희비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과 관련된 Rotter(1966)의 내부통제가 있으며, ④ Kohlberg(1969)의 원칙에 의거한 도덕적 논리적 사고로 보편타당한 도덕적 원칙을 정의에 부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즉, 집단주의는 자신의 견해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와 욕구를 더 강조하고, 자신의 행복보다는 집단이 규정하는 규범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집단성원과의 협동을 중시하고, 집단에 대해서 강한 정서와 애착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Triandis, 1989).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를

특수한 집단의 일부로서 비독립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집단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여기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그 집단의 규범에 의거하여 받아들인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는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실상 사회보다 선행하여 실재하고, 가치면에서 또는 권리상 개인을 우선 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신수진, 최준식, 200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변화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고학력화, 도시화, 현대화 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인주의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이종한, 2000). 그러나 두 가지의 가치관의 양립은 현실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종합해 볼 때 집단주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가 갖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공동체적 요소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자신보다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직장, 학교 등에 부합하는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통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은 보다 개인의 내적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고 사회화 조직 및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국내 노인들의 시대적, 문화적,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토대로 개인주의 가치관과 집단주의 가치관의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노년기 사회활동 및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

1) 노년기 삶의 만족도 개념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와 Havinghurst, Tobin(1961)이 활동 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적응(adjustment)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노년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권중돈, 조주연, 2000; 박선희, 2005; Mannell & Dupuis, 1996).

Neugarten, Havinghurst 와 Tobin(1961)은 삶의 만족도 구성요소로 현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본인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그리고,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룸으로써 인생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감정, 긍정적 자아상,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라고 하였다(박선희, 2005). 그리고 Havinghurst(1968)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삶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김명자, 1982)과 일종의 태도로서 이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보았다(오경희, 2002; Medley, 1976).

또한 대표적인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삶의 만족도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확장되었고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삶의 만족도의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준거 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정서적 차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 개념은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였을 때 만족은 과거,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상태의 지속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보면,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인지상태인 반면 행복은 일시적인 정서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다(권중돈, 조주연, 2000).

그러나,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만족의 범위를 삶 또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모호해짐을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용어는 '생활만족도⁹⁾'와 '삶의 질¹⁰⁾' 등과 같은 의

9)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미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삶 전반에 주관적인 정서인 행복과 만족에 대한 태도이며, 개인의 기대와 그 충족 여부에 의해 정해지는 긍정적인 만족감 또는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관적 평가에 의한 긍정적 심리상태로서 대체로 자신이 인지하는 성취감, 소속감, 행복감 등은 삶의 대한 전체적인 회고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만족감의 상태는 지속적인 것이라기보다 노인을 둘러싼 환경, 심리상태, 건강상태 등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한 가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은주(2005).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선희(2005).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0) 강수균(2000).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3(1), 113-137.

2)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노년기 사회활동, 가치관, 삶의 만족도

(1) 성

사회활동에 있어서 남성 노인의 경우 생활주기 전반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며,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 연관하여 비슷한 동년배와 집밖에서의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성 노인은 감정적 역할에 보다 익숙하여 정서적 교류를 중시하여 친척이나 친구들의 만남 또는 모임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Atchley, 1975). 남성 노인들은 친구와의 모임이나 운동, 등산, 낚시, 바둑, 장기, 화투 등 가정 밖에서의 사회활동이 많은 편인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종교생활을 통한 정적인 활동이 많고 운동이나 능동적인 취미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윤명희, 2005; 장연옥, 2001)고 보고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국내외 연구 결과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미혜, 정진경, 2003; 김주현, 2000; 류정란, 2002; 최지원, 2001; Chambre, 1984).

성에 따른 노년기 가치관의 차이로는 남녀 모두 가족에 대한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모든 준거 집단에 대해 여성보다 높은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에 의한 성향을 보이지 않으나 사회활동과 관련된 집

단에 대해서는 남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화연, 2001; 윤명희, 2005)

성과 관련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높다(박기남,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는 연구와 여성 노인이 높다는 연구(허준수, 2004) 등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 노년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배우자 상실 및 생산 활동 참여수준이 낮아 노후에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tchley, 1975; Edwards & Klemmack, 1973; Liang, 1982). 또한 여성 노인은 사적 영역인 가정환경에 국한되어 생활해왔기 때문에 남성 노인보다 고독, 우울감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혜자, 성명옥, 신윤아, 2003; 전지원, 2006)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여성 노인은 노년기 이전부터 남성 노인에 비해 노동 경험이 적고, 낮은 임금과 적은 자산 등으로 인해 이미 불리한 상황이었고, 노년기가 되면 남성 노인보다 긴 수명과 잦은 질환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Holden & Kuo, 1996). 국내의 경우 통계청(2007)의 조사에서 모든 빈곤 집단 중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수급권자 중 여성 노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배, 박은영, 2007).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성에 있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연령

연령이 점차 증가될수록 여가시간 역시 증가하나 건강상의 문제나 기력의 쇠퇴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활동을 함에 있어 집중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은 감소하는 반면, 비교적 덜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고령 노인의 경우 여가 활동의 장소가 집안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Patterson & Carpenter, 1994)고 보고하고 있다. 연령 증가 자체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같은 노인이라 할 지라도 연령에 따른 사회적 관계나 건강 상태, 결혼 형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령은 직접적인 영향력의 변인이기보다 간접적인 노인의 인구학적 배경으로서 작용되었으며, 김영모(1990)의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지원(2001)의 연구에서는 60~65세 미만의 43%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은주(2005)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61~71세로 응답되어 시기적으로 직장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참여 및 역할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노년기 가치관의 차이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수직적인 사회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관계유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설명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명희, 2005).

Mroczek와 Spiro(2005)는 연령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65세를 정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 차차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신체적 건강과 결혼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높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전지원, 2006). 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2005; Chen, 2001) 는 연구가 있는 반면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박기남, 2004; 허준수, 2004)가 보고되어, 조사 대상자들의 표집과 선정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연령의 효과를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변인으로서 살펴본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교육 수준

Havinghurst(1963)에 의하면 많은 교육을 받은 노인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체력 관리를 위한 활동, 클럽활동, 정치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 등을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교육을 덜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TV시청, 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교육수준이 노인의 여가를 통한 사회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숙자, 2001; 윤명희, 2005)

가치관에 있어서 학력은 최종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더욱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화연, 2001; 윤명희, 2005).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은 반면, 개인주의 가치관은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이기학, 2006)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백경숙, 권용신, 2007; 백정미, 2000; 이선미, 2001; 전지원, 2006)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박계범(1985)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cClelland(1982)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으면 생활수준도 높아져서 자신의 실제 수준에 대하여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종교

종교는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하고 종교 기관은 많은 사람에게 여가 시설을 제공해 줌으로 종교를 갖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여가를 통

한 사회활동참여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종교의 유무는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숙자, 2001). 노년기를 여유 있게 맞이하고, 죽음에 대하여 초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보람 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종교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우복, 1993; 임계선, 2004).

Moberg(1975)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상관관계를 규명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결과(김미숙, 박민정, 2000; 김태현, 김수정, 1996; 이우복, 1993)가 다수이다. 그러나 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전체정(2004)과 윤명희(2005)의 연구결과 남성 노인들의 종교 활동이 여성 노인의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노년기 생활 관리에 있어서 여성 노인들은 손자녀 교육이나 인성 관리와 같은 윤리적 목표가 강한데 비해 남성 노인들은 음주나 흡연, 화투놀이와 같은 단순 오락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5) 결혼 상태

장연옥(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사별, 이혼 등 배

우자가 없는 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 상실은 심리적 외로움 및 역할 상실감을 갖게 하므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는 사회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봉사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Fischer, Mueller & Cooper, 1991). 하지만 배우자를 최근에 잃은 노인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더 적극적인 동기를 보이는데 이는 가족상실, 역할상실을 보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최지원, 2001; Fischer, 1995)고 밝혔다. 또한 노인 주위에 배우자 및 피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재정적 자원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철회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양후영, 2001).

결혼 상태에 따른 노년기 가치관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기혼 집단의 집단주의 성향이 사별,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화연(2001)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충선, 1990; 임주영, 전귀연, 2004; 임계선, 2004; Palmore, 1979). 그러나 배우자 상실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배우자 상실 그 자체에도 기인하는 요인이 있지만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때문이라는 견해가 더욱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6) 경제적 수준

임금이 높았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유사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 경제 및 근로 활동을 계속하도록 유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Galloway, 1965; 양후영, 2001).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주의적인 가치관과 자녀에게 주로 의존하는 노후 생활로 인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가 축소되어 있으며,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여 체념적, 수동적 성향이 높은 가치관으로 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과는 반대로 장인협과 최성재(1997)의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보장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 때는 만족도가 낮아진다(김태현, 1986; Berado, 1980; Chatfield, 1977; Larson, 1978)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은퇴에 따른 가계경제생활의 전체적인 수입의 감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경제수준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도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 높게 나타났다(김태현, 한은주, 2004; 박충선, 1990; 윤종희, 이혜경, 1997; 조옥희, 1991; Edwards & Klemmack, 1973).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경제적인 수준은 노년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덜 의존할 수 있는 자립, 물질적·심리적 만족감 등과 관계가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7) 건강 상태

건강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중요한 변수로 건강이 좋지 못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정옥희(1994)에서 80%이상이 양호하였고, 신은주(1995)에서는 85%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감퇴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적응을 어렵게 하므로 노후의 건강 상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활에 만족하며,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만족을 수반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하였다(최혜경, 1985; 임계선, 2004; Edwards, 1973; McClelland, 1982). 노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 상태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객관적 건강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심할수록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지원, 2005).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에게 있어 건강은 일상적인 생활과 기타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외형적인 조건이 되며, 심리적 주관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8) 직업

직업과 관련하여 고령의 노동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로는 직업적 지위, 직종, 직업 안정도, 직무 특성 등 다양하다. 관리직,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노동 시간, 노력 등과 관련한 노동 계획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소득 조사를 회피할 여지가 많고, 따라서 그 만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양후영, 2001). 특히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동년배의 전업주부나 미취업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Betty & Burroughs, 1999; Riddick, 1985), Choi(2001)는 고용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만족의 잠재적인 결정 요인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박주현(2002)은 65~69세 노인들과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업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성, 재정상태, 거주형태, 과거 직업의 유무에 따른 직업 활동 참여 욕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력 및 학력과 상호 관련하여 노인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자유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영기, 1992).

또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직업 역할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으며, 사회 참여를 통해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윤순덕, 한경혜, 2004).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가 주를 이룬다(김춘택, 박종우, 1999; 박기남, 2004;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1996; Aquino & Russel, 1996). 한편 김미숙과 박민정(2000) 그리고 이정화와 한경혜(2003)의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직업 활동 또는 취업이 노후 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생활을 하는 노인들 중 본인이 원해서 취업을 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을 해야만 하는 노인들의 경우 취업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9) 가족형태

노인에게 있어 가족구성원의 형태는 다른 어떤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환경이다. 자녀와의 동거 여부나 가족형태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자녀와 동거를 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권중돈, 조주연, 2004;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이신숙, 이경주, 2002)가 있는 반면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원영희, 1995; 윤종희, 이해경, 1995)도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자녀와의 동거와 가족구성원을 이루는 형태의 외형보다는 노인의 부양기대와 자녀의 부양 의식간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 일수 있으며(김명원, 1991) 오히려 자녀와의 유대감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세대간의 주관적 결속이 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김태현, 1999; 정혜정, 1998; 홍숙자, 1992). 즉, 세대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이 양적인 측면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년기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원 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의 활동 유형별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검증을 위해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가?

1-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2. 노년기 활동 유형별 집단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있는가?

<연구 문제 2>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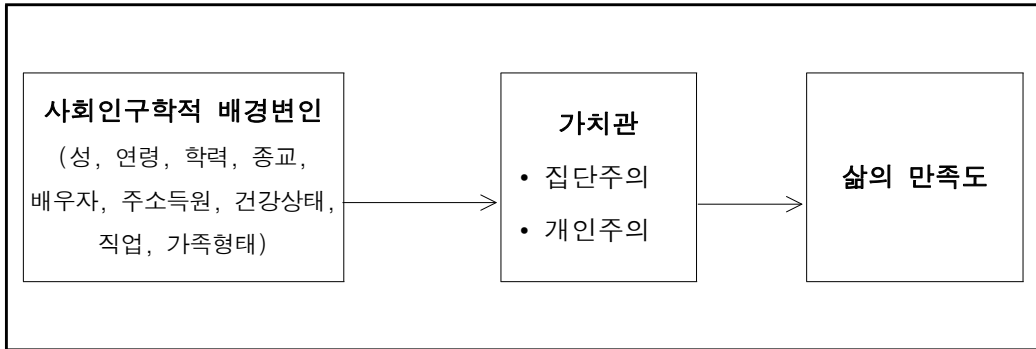
2-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2. 노년기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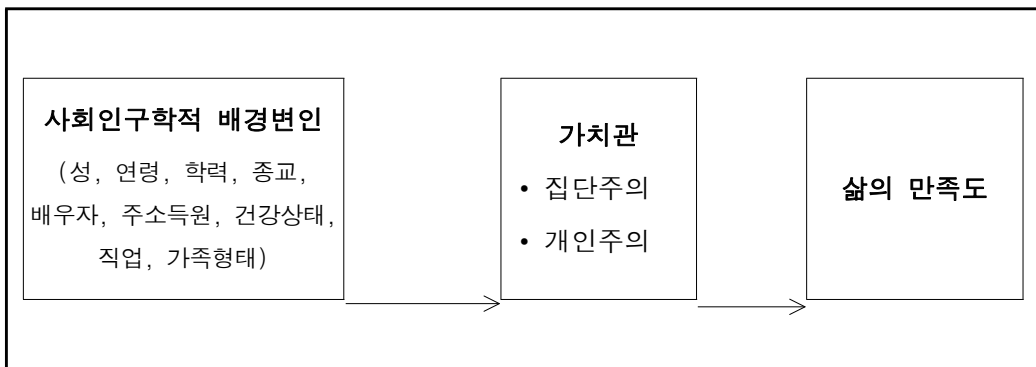
<연구 문제 3>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자원봉사 활동 유형의 연구 모형



<그림 -2> 경제 활동 유형의 연구 모형

2. 용어의 정의

1) 노년기¹¹⁾

노년기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심신의 활동이 최고로 발휘되는 성인기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설명된다. 즉, 인생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뜻하며, 전체인구 중 가장 나이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연령 집단 또는 세대를 말한다. 또한 노인 복지법상 노인으로 명명하는 연령은 65세이며, 노년기로 분류하는 가족생활주기상의 범주에서는 통념상 60세 이상부터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대상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60세 이상의 연령 세대 집단이며, 생애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자녀와의 분리가 이뤄지는 시기를 노년기로 정의 하고자 한다.

11) 사전적 의미 및 정의 : 생물학을 비롯해 사망률과 유병률(有病率)의 상태를 말하는 인구학, 고용과 퇴직, 그리고 사회학 등 분야마다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및 공공행정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60세나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노년기로 규정한다.

2) 활동 유형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활동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개인, 전문기관의 조직단체,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서 보상의 혜택이 전혀 없는 무급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지속적인 과정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만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거나, 은퇴 후 직업 활동 유형이 변화가 되었고, 적절한 보상 및 소득의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활동을 분류하였다. 취업의 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등, 1주일 또는 1개월의 몇 회 정도로 제한하여 고용되어 주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은퇴 후 새롭게 취업된 경우, 자영업 등을 통해 일정량의 수입이 있는 모두 경우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은 자신의 견해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와 욕구를 더 강조하고, 집단이 규정하는 규범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집단성원과의 협동을 중시하고, 집단에 대해서 강한 정서와 애착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은

현대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사회적인 집단보다 자신의 가치와 권리가 선행해서 실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 전반에 걸쳐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서로 행복과 만족감에 대한 태도이며, 개인의 기대와 충족 여부에 의해 정해지는 긍정적인 만족의 상태 또는 행복감을 뜻한다.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의한 긍정적 심리상태로 성취감, 소속감, 행복감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조사 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삶의 만족도, 가치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두 가지의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통의 문항과 선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공통문항으로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 응답자가 인지하는 성격, 과거 직업, 현 직업, 월평균 수입(용돈 포함), 경제상태, 가족형태, 가족관계, 종교, 종교 활동정도, 결혼 상태, 건강 상태에 관한 총 15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과정에 있어 두 가지의 활동 유형은 각기 다르게 구성된 질문지와 각 활동 형태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유의표집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의 활동 형태별 구성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집단

활동 주기(빈도), 활동 기간, 참여 동기, 참여 경로, 참여한 활동 유형, 만족도, 타인 권유 정도, 주변 반응, 이익의 형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경제활동 집단

공통문항, 활동 주기(빈도), 활동 기간, 활동을 통해 얻는 월수입, 참여 동기, 참여 경로, 만족도, 타인 권유 정도, 주변 반응, 이익의 형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가치관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재은(1987), 신수진(1998), Triandis(1995), Trompenaars(1996)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신수진(1998)의 '전통적 가족주의 존속의 이념 정도'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가치관 척도가 구성되었으며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로 구성 되어있다(신수진, 1998; 윤명희, 2005). 신수진(1998)의 문헌을 참고하면, 집단주의, 개인주의 척도는 Triandis(1989, 1995)이 정리한 것으로 태도에 관한 32문항과 행동에 관한 31문항의 총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로 4개 영역¹²⁾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12) 4개의 영역 : 수직적 집단주의는 성실한(dutiful) 것을, 수평적 집단주의는 협동적(cooperative)인 것을, 수직적 개인주의는 성취성(achievement)을, 수평적 개인주의

영역에서 태도측면에 관련된 32문항은 9점 likert형이며, 행동측면을 나타내는 31문항은 시나리오를 통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태도에 관련한 32문항 중 1문항¹³⁾을 제외한 총31문항¹⁴⁾만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관의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적이거나 개인적인 가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신뢰도의 결과 집단주의 가치관은 총 17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는 .798 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가치관은 총 14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 .706 로 나타났다.

는 특이한(unique) 것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다.

13) 문항: 『직업생활에 있어 타인보다 일을 더 잘해내는 것은 중요하다(집단적 영역)』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중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질문사항이기에 무기명, 또는 누락의 폐해가 예비조사에서 거론되어 본 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을 전문가와 논의하여 삭제한 뒤 조사하였다.

14) 개인주의 가치관 문항 17개, 집단주의 가치관 문항 총14문항

< 표 -1 > 가치관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의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점수 범위	Cronbach's α
가치관	• [요인 1] - 집단주의 (2, 3, 5, 6, 7, 9, 10, 12, 13, 15, 16, 19, 21, 23, 27, 29, 30)	17	31-93	.798
	• [요인 2] - 개인주의 (1, 4, 8, 11, 14, 17, 18, 20, 22, 24, 25, 26, 28, 31)	14		.706

3) 삶의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측정에는 윤진(1982)의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부분의 8개 문항과 경험부분의 12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과 부정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 각각 10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시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요인 부하량에 문제가 없으므로 20개 문항이 모두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각 요인의 신뢰도는 요인 1이 총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 .896, 요인 2는 총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는 .866 으로 나타

났다.

<표 -2> 삶의 만족도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의 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점수 범위	Cronbach's α
삶의 만족도	• [요인 1] - 부정 (3, 4, 6, 7, 11, 14, 15, 18, 19, 20)	10	20-60	.896
	• [요인 2] - 긍정 (1, 2, 5, 8, 9, 10, 12, 13, 16, 17)	10		.866

4.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1)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노년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활동 유형별로 이분화된 표집 대상 중 자원봉사를 하는 집단의 경우 무급의 형태로 월 1회 이상의 개인, 집단, 전문기관 등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는 시간제, 1주일, 1개월의 몇 회 정도로 활동을 하여 정기적인 고용 상태의 있으며, 소규모의 자영업 등의 형태를 통해 일정량의 수입이 발생하는 유급의

형태를 경제활동 대상으로 범주화시켰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활동 형태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 표 - 3 >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집단은 여성 노인이 125명(62.2%), 남성 노인은 76명(37.8%)로 여성 노인의 응답 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제활동은 남성 노인(N=127, 58.0%)에 비해 여성 노인(N=92, 42.0%)의 비율이 다소 낮은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된 활동 유형의 성격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반영의 결과가 성에서 나타났다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많은 선행 연구의 결과(김미혜, 정진경, 2003; 김양자, 2008; 김주현, 한경혜, 2001; 류정란, 2002; 임정순, 2005)와 동일하게 여성 노인들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활동의 형태로 응답되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집단에서는 60~69세(N=125, 62.2%) 연령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70~79세(N=106, 48.4%) 연령 집단이 높게 응답되었다. 이러한 특성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경우 비교적 다른 연령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초기 노년기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집단 보다 연령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태를 통해 살펴본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동기에 대해 '생계유지(40.2%)'로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혜택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이득이 34.7%로 나타나 취약한 경제생활로 인해 70대의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N=102, 51.3%)과 경제활동(N=105, 48.0%) 집단 모두 고졸의 학력수준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력의 수준에서도 두 집단 모두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월평균 용돈 및 생활비의 금액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집단에서는 50~100만원 이하가 85명(42.3%)이며, 경제활동 집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분석결과 표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와 동거로 인해 별도의 생활비가 발생되지 않는 점과 정기적인 용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응답되었음을 설문 조사시 확인 되었다.

종교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172명(85.6%), 경제활동 집단은 163명(74.4%)로 두 집단 유형 모두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집단은 부부가구의 비율이 67명(33.3%)이었고, 경제활동 집단은 3세대로 구성된 가족형태로 79명(36.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경우 부부가구와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대체로 노년기의 가족구성의 형태가 부부단독의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맥락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2005)의 조사에서 2004년 노인 단독의 거주형태 비율이 34.4%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비율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원봉사 활동 집단은 138명(68.7%), 경제활동 집단은 157명(71.7%)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대한 조사는 과거 직업 형태와 현 직업 형태를 나누어 조사하였

다. 먼저 과거 직업 형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는 전업주부(N=64, 32.5%) 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상업, 생산직 외의 직업형태(N=76, 34.7%) 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현 직업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는 무직(N=91, 46.7%) 과 전업주부(N=75, 38.5%)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활동에서는 상업, 생산직 등이 130명(59.4%)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의 유형을 통해 대체로 노년기 이전에 이루어진 직업의 유형이 노년기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지는 주로 서울시로 자원봉사 집단은 136명(68.0%), 경제활동 집단은 188명(85.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인지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수준을 상·중·하로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 집단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은 '상'의 수준으로 78명(37.7%)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수준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활동 집단은 자원봉사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대부분 '하'의 수준으로 응답(101명, 46.0%)되어 약 절반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자신의 건강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와 자립적인 생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집단이 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조사대상자들로 표집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표 - 3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활동 유형		자원봉사 활동		경제 활동		활동 유형		자원봉사 활동		경제 활동	
변인	분류	N	%	N	%	변인	분류	N	%	N	%
성	남자	76	36.8	127	58.0	가족 형태	3세대	47	23.4	79	36.1
	여자	125	62.2	92	42.0		2세대	55	27.4	41	18.7
연령	60-69세	125	62.2	92	42.0		부부가구	67	33.3	72	32.9
	70-79세	65	32.3	106	48.4		독신	27	13.4	27	12.3
	80세 이상	11	5.5	21	9.6	건강 상태	상	78	37.7	55	25.0
학력	초등졸업 이하	37	18.6	36	16.4		중	67	32.4	63	28.9
	고졸	102	51.3	105	48.0		하	60	29.0	101	46.0
	대학졸업	53	26.6	65	29.7	과거 직업	무직	16	8.1	12	5.6
	대학원 이상	7	3.5	13	5.9		전업주부	64	32.5	36	16.4
15) 주소득원 (용돈, 생활비)	없다	37	18.4	33	13.4		상업,생산직외	42	21.3	76	34.7
	50-100만원이하	85	42.3	137	55.7		일반사무직	45	22.8	52	23.7
	101-200만원이하	74	36.8	61	24.8	관리,전문직	27	13.7	43	19.6	
	200만원 이상	5	2.5	15	6.1	현직업	무직	91	46.7	-	-
	배우자	유	138	68.7	157		71.7	전업주부	75	38.5	-
무		63	28.1	62	28.3		상업,생산직외	-	-	130	59.4
종교	유	172	85.6	163	74.4	일반사무직	-	-	12	5.6	
	무	29	14.4	50	25.6	관리,전문직	-	-	22	10.0	
거주지	유	172	85.6	163	74.4	전문강사 외	-	-	50	23.3	
	무	29	14.4	50	25.6	서울시	136	68.0	188	85.8	
합 계		201	100.0	219	100.0	합 계		201	100.0	219	100.0

(단위 : N = 201, 219, %)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5) 주소득원에서 자원봉사 집단과 경제활동 집단 모두 주로 자녀에 의해 용돈과 생활비를 받는 경우임.

2) 조사 대상의 활동유형별 집단의 실태

(1)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실태

다음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노년기 활동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표 - 4>와 <표 -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는 총 201명으로 조사를 통해 살펴본 실태의 결과는 <표 - 4>와 같다.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의 참여 정도는 1주에 2~3회(N=82, 41.0%)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7%(N=102)로 나타나 대체로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1주의 절반 정도를 활동함으로써 장기적인 활동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경로의 경우 26.1%(N=52)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에서 이뤄지는 소개를 통해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소개받은 후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된 자원봉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력봉사의 경우가 21.8%(N=43)로 보다 더 고령인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나, 간호, 목욕도우미, 도시락 배송 등으로 노노(老老)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 세대의 돌봄보다 더욱 깊은 친밀감과 이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어 참여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체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통해 인지하는 만족감의 상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6.7%(N=132)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 의사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만족감의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신의 만족감의 상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노인들은 타인에게도 권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87.2%(N=171)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 주위의 반응에 대해서는 87.3%(N=172)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47.2%(N=9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은 대체로 소수 노인들의 경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대체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봉사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20.9%, N=41)를 들었다.

< 표 -4 > 자원봉사 활동 유형의 실태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참여 정도	한 달 1~2회	32	16.0	참여 동기	자신의 지식, 경험활용	22	11.1
	2주에 1회	10	5.0		새로운 지식, 경험 얻음	10	5.1
	1주에 1회	42	21.0		여가를 보람 있게	39	19.7
	1주에 2~3회	82	41.0		사회적 책임과 의무	5	2.5
	1주에 5회	28	14.0		과거 봉사경험이 좋아서	6	3.0
활동 기간	1년	44	21.9		주위 사람의 권유	11	5.6
	2-3년	43	21.4		종교적 신념의 실천	44	22.2
	3년 이상	102	50.7		대인관계의 확대	4	2.0
만족감	만족스럽지 못함	18	9.1		타인에게 도움 제공	41	20.7
	보통	48	24.2		건강 유지를 위해	13	6.6
	만족스러움	132	66.7				
주의 반응	적극지원	172	87.3	활동 종류	각종 상담활동	33	16.8
	무관심	13	6.6		말벗도우미	9	4.6
	중단요청	12	6.1		교육지도 전문 강사	22	11.2
타인 권유	있다	171	87.2		방문활동(경로당, 요양원)	30	15.2
	없다	25	12.8		노력봉사(호스피스, 간호 등)	43	21.8
혜택	삶의 보람	93	47.2	지역사회활동	23	11.7	
	대인관계	16	8.1	비활성 이유	건강하지 못해서	29	14.8
	여가시간 활용	18	9.1		필요성 인식 없음	12	6.1
	성숙과 발전	21	10.7		활동하는 곳을 모름	22	11.2
	건강의 이로움	30	15.2		기관의 활용의지 부족	28	14.3
	생활의 활력	18	9.1		어떤 봉사를 할지 몰라서	29	14.8
참여 경로	매스컴(tv, 라디오 등)	7	3.5		활동이 다양하지 않음	14	7.1
	노인교실, 복지관 등 소개	52	26.1	봉사의식과 책임감 부족	41	20.9	
	경험자의 권유	31	15.6	이기적인 마음 때문	17	8.7	
	가족, 친지 등의 권유	22	11.1				
	스스로 단체, 기관 방문	42	21.1				
	종교 활동의 일환	44	22.1				
합 계		201	100.0	합 계		201	100.0

(단위 : N = 201, %)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경제활동 집단의 실태

자원봉사활동 다음으로 살펴본 활동 형태는 경제활동 집단으로 총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는 총247명으로 조사를 통해 살펴본 실태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주에 5회 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N=83)로 나타났고, 활동 기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 (N=104, 47.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입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월수입은 50만원이하가 41.3%(N=10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일을 하여도 노인계층의 소득수준은 다른 연령대의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경제활동의 참여 동기를 40.2%(N=88) 가 생계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소개(N=78, 35.6%)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보통' 이라는 응답이 45.2%(N=99)이었고, 이에 반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만족감에 대한 비율이 31.1% (N=68)에 달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다른 타인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는 비율이 67.1%(N=147)에 달하였고, 주위의 반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응답이 74.9%(N=164)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경제활동의 혜택을 고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경제적인 이득(N=76, 34.7%)의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현장이나 직종이 부족(N=84, 38.4%)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표 - 5 > 경제활동 유형의 실태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참여 정도	한 달 1~2회	19	8.7	활동 기간	1년	50	22.8
	2주에 1회	5	2.3		2-3년	65	29.7
	1주에 1회	33	15.0		3년 이상	104	47.5
	1주에 2~3회	79	36.1				
	1주에 5회	83	37.9				
수입	50만원 이하	102	41.3	만족감	만족스럽지 못함	68	31.1
	51~100만원	59	23.9		보통	99	45.2
	101~200만원	29	11.7		만족스러움	52	23.7
	200만원 이상	28	11.3				
참여 동기	자신의 지식, 경험활용	22	10.0	혜택	삶의 보람	34	15.5
	새로운 지식, 경험 얻음	10	4.6		대인관계	13	5.9
	여가를 보람 있게	28	12.8		여가시간 활용	31	14.2
	돈(용돈) 풍족하게 사용	18	8.2		성숙과 발전	7	3.2
	건강 유지를 위해	19	8.7		건강의 이로움	34	15.5
	생계유지	88	40.2		경제적 이득	76	34.7
	가족, 자녀의 의지 싫어서	34	15.5		위치, 역할유지	24	11.0
주의 반응	적극지원	164	74.9	참여 경로	매스컴(tv, 라디오 등)	13	5.9
	무관심	26	11.9		노인교실, 복지관 등 소개	78	35.6
	중단요청	29	13.2		취업센터 등을 통해	33	15.1
					가족, 친지 등의 권유	49	22.4
					기업의 재고용	7	3.2
			개인 경영의 자영업	39	17.8		
타인 권유 생각	있다	147	67.1	비활성 이유	건강하지 못해서	35	15.9
	없다	72	32.9		기관의 활용의지 부족	40	18.3
					필요성 인식 없음	43	19.6
					능력과 기술 등의 부족	17	7.8
					현장, 직종 부족	84	38.4
합 계		219	100.0	합 계		219	100.0

(단위 : N = 219, %)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므로 누락되는 문항의 응답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연령이 다소 높은 응답자의 경우 조사원의 도움을 통해 응답이 실시되었다. 또한 각 활동 유형별로 구성되어 응답 전 활동의 유형을 확인 한 후 질문지의 응답이 실시되었고, 자세한 설문지의 유형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 2월 25일~3월 6일까지 조사 대상자의 표집 방법은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60세 이상의 노인 40명(남성 N=11, 여성 N=29)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조사 방법으로 신뢰도 검증과 영역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거나, 요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제외 되어 본 조사 실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는 2008년 3월 20일~4월 18일까지 유의 추출법에 의한 표집방법으로서 조사 대상의 자료가 최종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의 수집 과정 시 응답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일정의 교육을 받은 조사원과 함께 본 연구자에 의해 조사 과정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대부분 일반 공공장소(서점, 공원, 노상, 병원 등) 또는 전문 노인시설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고, 일부 컴퓨터가 가능한 조사 대상의 경우 질문지의 파일을 전송하여 다시 회신을 받는 형태로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53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515부가 회수되었다. 응답 문항이 부실 기재되거나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설문 응답 95부는 모두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 자료로 분석된 설문지는 총 420부이다. 노년기 활동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기 다르게 구성된 질문지 두 가지를 통해 자원봉사 집단($N=201$), 경제활동 집단($N=219$)이 조사되었다.

5. 자료의 분석 방법

연구 문제 및 척도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에 앞서, 척도 구성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을 요인 추출하여 최종 분석 과정에 선택하여 해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 중 가치관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신뢰도를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2>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 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3>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부록 3>에 제시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4.0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노년기 활동 유형별 집단간 차이

1-1.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년기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오차를 통해 분석되어 <표-6>에 제시하였다.

가치관의 척도는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경향 중 집단주의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2.422점 ($SD=.310$)이며, 개인주의 가치관은 평균 점수는 2.053점 ($SD=.31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조사 대상자들의 가치관의 경향은 개인주의 가치관에 비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삶의 만족도 척도로 본래의 구성은 부정과 긍정의 하위 요인으로 되어 있으나, 부정의 하위 요인을 긍정의 방향으로 점수를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의 긍정성의 평균 점수는 2.255점 ($SD=.388$)으로 중간값에 다소 못 미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은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관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의 성향이 높았으며,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를 비교적 긍정적이며,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6 > 조사 대상자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 척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표준오차 (S. E. Mean)
가치관	집단주의	420	1.12	3.00	2.422	.310	.015
	개인주의	420	1.36	3.00	2.053	.315	.015
삶의 만족도		420	1.05	3.00	2.255	.388	.019

1-2. 노년기 활동 유형별 집단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

노년기 활동 유형별 집단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 표-7 >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각 활동 유형별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에 있어서 집단주의 가치관(M=2.440)이 개인주의 가치관(M=2.05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수준에서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활동 유형 모두 삶의

만족도($t=4.092, p<.001$)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가치관의 개념에 형이상학적 측면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치의 개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세대가 아니며, 오히려 이중적인 가치관에 의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활동 유형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것은 가치관 개념에 비해 비교적 이해가 쉬웠고,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아 연관성이 정확히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의 유형보다는 노년기에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사항으로 작용되어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긍정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표 - 7 > 활동 유형별 가치관, 삶의 만족도 차이

변인	집단주의		개인주의		삶의 만족도	
	N	(SD)	N	(SD)	N	(SD)
자원봉사 활동	2.440	(.343)	2.050	(.318)	2.337	(.399)
경제 활동	2.408	(.280)	2.056	(.313)	2.186	(.365)
t값	1.080		-.199		4.092***	

(N=201, 219)

*** $p < .001$

2.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문제 2>인 배경 변인에 따른 노년기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 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검증

본 연구 결과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중 가치관에 유의미한 변인은 성($p < .05$)과 종교($p < .01$)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인은 성($p < .001$), 종교($p < .01$), 가족형태($p < .05$), 과거 직업($p < .0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인간의 유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가치관($p < .05$)과 삶의 만족($p < .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들의 개인주의 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기연(2002)과 윤명희(2005)의 연구와 반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내향성의 증가, 은퇴, 대인관계의 축소 등 대외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들의 주된 경험이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구조에 의해 여성은 가사 생활환경에 중심을 이루고, 남성은 사회 경제생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노인들의 경우 내적 성향으로의 심리적 경향성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주의 가치관이 여성 노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회적 환경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남성 노인들보다 여성 노인들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정명숙(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점차 여성 노인의 만

족도가 더 높아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인들이 사회 영역과 생산 영역에서 만족도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자녀를 출가시키고 예전만큼 가사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자원봉사, 노인대학, 사적 모임 등 사회활동의 반경을 넓혀나가는 것이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가치관($p < .01$)과 삶의 만족도 ($p <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노인이 종교가 있는 노인에 비해 개인주의 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노인 보다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김미령(2008)의 연구도 종교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 참여 빈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지지하고 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p < .05$)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 형태에 있어서 3세대 가족형태 집단이 독신 가족형태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혜와 정진경(2003)의 연구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에서 노인들은 생활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과거 직업($p < .05$)에 경우 전업주부와 관리·전문직에 종사했던 집단이 무

직,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에 종사했던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박경숙(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과거 전문직·관리직·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한 노인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적 성격을 지니는 직종군에 속하며, 경제적 자립성이 강한 노인일수록 노후의 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여 직업적인 특성 이외의 것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전업주부 집단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동 집단의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여성이었으며,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역할로서 전업주부가 대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 특징 중 남성 노인이며,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개인주의 가치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인이며, 종교가 있는 노인, 그리고 3세대의 가족형태를 취하는 집단이며, 과거 직업이 전업주부와 관리직·전문직에 종사했던 집단 일 때 다른 직종군(무직,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의 직업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8 >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변인	분류	집단주의 가치관			개인주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		
		M	SD	D	M	SD	D	M	SD	D
성	남자	2.390	.323		2.117	.307		2.234	.393	
	여자	2.470	.353		2.009	.318		2.400	.390	
	t값	-1.595			2.368*			2.905***		
종교	유	2.447	.346		2.035	.309		2.371	.382	
	무	2.394	.335		2.152	.352		2.139	.447	
	t값	-.782			1.851**			2.596**		
가족 형태	3세대	2.053	.429		2.071	.381		2.406	.273	C
	2세대	2.406	.310		2.053	.290		2.271	.371	AB
	부부가구	2.448	.308		2.058	.307		2.396	.416	BC
	독신	2.436	.374		2.020	.332		2.256	.533	A
	F값	.630			.137			3.014*		
과거 직업	무직	2.388	.258		1.993	.337		2.132	.428	A
	전업주부	2.453	.333		2.011	.308		2.440	.359	B
	생산·단순노무 등	2.422	.501		2.023	.276		2.266	.350	A
	일반사무직	2.426	.228		2.134	.335		2.272	.442	A
	관리·전문직	2.506	.252		2.064	.339		2.454	.358	B
F값	.415			1.252			3.559*			

(N=201)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2-2. 노년기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검증

본 연구 결과 경제활동 집단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중 가치관에 유의미한 변인은 종교($p < .05$)와 가족형태($p < .05$)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인은 과거 직업($p < .05$)과 현 직업($p < .001$)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인간의 유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p < .01$)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노인이 개인주의 가치관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 활동 집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활동 유형별로 종교의 차이를 볼 때, 자원봉사 활동은 종교와 공통적인 요인의 특성과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존중, 자신에 대한 헌신 등이 공통요인이 될 수 있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경우 개인의 이익과 혜택, 목적을 준수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노인이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형태($p < .05$)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세대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취하는 집단이 3세대와 독신의 가족형태를 취하는 집단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노인들은 생애 성장기에 확대가족을 통해 공동체적인 생활이 많았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의 생활주기가 변화하는 현대적 사회에 적응하도록 변화하였다. 점차 핵가족의 형태가 두드러지고,

자녀의 성장기에는 주로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나, 노년기에는 부부 또는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직업($p < .01$)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전업주부, 생산·단순노무직·숙련기술직, 관리·전문직, 일반사무직, 관리직·전문직을 직업이 있는 형태로 간주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무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직업($p < .01$)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생산·단순노무직·숙련기술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 직종의 집단이 전문 강사 직종의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기의 직종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전문 강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군은 모두 과거에도 경험해 왔던 유형들이다. 전문 강사에 해당하는 직종은 예를 들어 뛰어난 어학 능력이 있는 경우 학습이 요구되는 신세대 청소년 또는 동년배 노인들에게 교육자로서 활동하게 되거나, 다도, 한문, 컴퓨터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종의 내용을 갖는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확산된 양산이 아니므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추후 관련 변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은 김미령(2008)의 연구에서도 직업 활동의 유무와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현재 활동이 가능한 직업의 필요성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 특징 중 종교가

있는 노인, 2세대로 구성된 가족형태 집단일 때 개인주의 가치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직업은 무직의 집단보다 유직의 다양한 직종군에 활동 경험이 있을 때, 현 직업에서는 생산·단순노무직·숙련 기술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전문 강사 직업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9 >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에 따른 가치관, 삶의 만족도의 차이

(N=219)

변인	분류	집단주의 가치관			개인주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		
		M	SD	D	M	SD	D	M	SD	D
종교	유	2.396	.287		1.985	.296		2.202	.348	
	무	2.453	.249		2.073	.312		2.147	.411	
	t값	1.409			1.845*			.941		
가족 형태	3세대	2.362	.298		1.970	.322	A	2.249	.356	
	2세대	2.443	.245		2.126	.288	B	2.168	.396	
	부부가구	2.388	.306		2.060	.309	AB	2.223	.310	
	독신	2.456	.273		1.954	.302	A	2.103	.361	
	F값	1.246			3.757*			1.160		
과거 직업	무직	2.222	.256		2.086	.372		1.975	.270	A
	전업주부	2.414	.290		1.975	.325		2.122	.334	B
	생산·단순노무 등	2.450	.261		2.061	.336		2.232	.419	B
	일반사무직	2.385	.293		2.099	.230		2.155	.324	B
	관리·전문직	2.412	.280		2.103	.347		2.231	.363	B
F값	1.882			1.269			1.776**			
현 직업	생산·단순노무 등	2.411	.267		2.058	.337		2.230	.385	A
	일반사무직	2.441	.243		2.071	.175		2.223	.210	A
	관리·전문직	2.371	.201		2.114	.349		2.270	.383	A
	전문강사 외	2.278	.229		1.928	.208		2.100	.497	B
F값	.491			.447			.306**			

* $p < .05$ ** $p < .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3.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 문제 3>인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계수의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 I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주 소득원(경제 수입), 건강상태, 과거 직업, 현 직업, 가족 형태의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가치관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식의 결과가 각 활동 유형별로 <표 - 10>과 <표 - 11>에 제시되었다.

3-1.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 10).

자원봉사 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I에서의 설명력은 21.6%로 나타났으며, 종교($\beta = .219, p < .01$)와 건강 상태($\beta = .242, p < .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노인이며, 인지적인 건강 상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 II에서는 가치관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31.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4%의 증가량이 나타났다. 유의한 변인으로는 종교($\beta = .209, p < .01$)와 건강 상태($\beta = .241, p < .001$) 그리고 가치관 중 집단주의 가치관($\beta = .333, p < .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노인이며, 인지적인 건강 상태가 높은 경우,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주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p < .001$)이었으며, 그 다음은 인지적인 건강 상태($p < .01$)와 종교($p < .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개인주의

가치관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공동체적인 집단을 이루어 전개되는 활동의 규모와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공동체적인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더 많이 요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가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20.7%)' 으로 응답된 비율을 볼 때, 개인주의적 지향보다 공동체적인 집단주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종교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 결과(김동규, 2002; 김미숙, 박민정, 2000; 김태현, 2007; 이원규, 2002; 전미애, 1999; 전해정, 2003; 최경숙, 2006)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종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없는 노인들 보다 활발한 종교 활동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망이 형성되어 노년기에 경험하는 무소속감, 고독감, 소외감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미령(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노인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타인지향적인 공동체적 집단주의 가치관과 종교,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이로 인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 표 - 10 >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

변인	삶의 만족도			
	Model I		Model II	
	B	β	B	β
성	.150	.181	.072	.088
연령	.005	.085	.001	.012
학력	.014	.024	.028	.047
종교	.241	.219**	.230	.209**
배우자	.129	.147	.060	.068
주소득원(용돈, 생활비)	.026	.072	.038	.103
건강상태	.090	.242**	.089	.241**
과거직업	.150	.160	.118	.126
가족형태	.068	.081	.067	.080
<u>가치관</u>				
집단주의			.390	.333***
개인주의			.046	.036
상수	1.632		1.023	
F	3.091***		4.349***	
R ² 증가량			.094	
R ²	.216		.310	

(N=201)

p< .01 *p< .001 종교 : 유=1, 무=0

3-2.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 11).

경제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I의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으며, 수입($\beta=.258, p<.05$)과 인지적 건강상태($\beta=.268,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높은 경우, 인지적 건강 상태 수준이 높은 경우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델 II에서는 가치관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21.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9%의 증가량이 나타났다. 유의한 변인으로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beta=.235, p<.05$)과 인지적 건강 상태($\beta=.268, p<.01$) 그리고 가치관 중 집단주의 가치관($\beta=.286,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경우, 인지적 건강 상태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주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p<.001$)이었으며, 그 다음은 수입($p<.05$)과 인지적인 건강 상태($p<.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제활동 집단은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개인주의 가치관 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본 연구에서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와 혜택을 살펴본 실태 분석결과 개인의 생계유지(40.2%)와 경제적 이득(34.7%)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의 가치관이 유의한 변인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사회조직과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업무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공동체 조직의 규정이 선행되고 순응되어야 하는 집단적 특성이 전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경제활동 집단에서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상관관계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으로서는 수입과 인지적 건강 상태가 나타났다. 즉 수입이 높을수록, 인지적 건강 상태가 양호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특히 수입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외재적 보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며(고수일, 한주희, 2003; 전지원, 2005),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수준이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 할수록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노년기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수입은 41.3%가 월 50만원 이하였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23.7%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사회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상체계에 대한 수준이 점검되어 활동에 대한 만족감

이 삶의 만족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는 본 연구의 결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다양한 활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양호한 건강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태 조사에서 노인들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를 상·중·하로 조사한 결과 '하' 집단의 응답 비율은 46.0%(N=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노년기에 점차 진행되는 노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저하되어 나타나거나, 실제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건강의 수준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지만, 보편적인 노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은 양호한 수준임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공동체의 조직을 이루는 경제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집단주의 가치관과 수입, 인지적 건강 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게 되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영향 변인이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표 - 11 > 경제활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삶의 만족도			
	Model I		Model II	
	B	β	B	β
성	.115	.153	.105	.141
연령	.001	.021	.001	.011
교육수준	.026	.045	.009	.015
종교	.080	.086	.086	.092
배우자	.019	.022	.023	.025
수입	.251	.258*	.226	.235*
건강상태	.118	.268**	.117	.268**
과거 직업	.130	.168	.137	.178
현 직업	.140	.159	.283	.185
가족형태	.136	.149	.150	.165
<u>가치관</u>				
집단주의			.271	.286***
개인주의			.120	.124
상수		2.152		1.486
F		1.603		2.722**
R ² 증가량				.029
R ²		.181		.210

(N=219)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고령의 추세는 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 다양한 연구의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인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되기보다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규정해 온 사회적 배경과 노인관련 복지정책의 개념이 기반을 이루고 있어 미시적인 접근의 해결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노인의 욕구와 복지에 대한 충족이 사전에 이루어지기보다 노후 생활의 적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부족했으며, 의존적이고 취약한 계층으로서의 노인상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 노년기를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생산적인 노인의 상을 제시하고자 활동 유형에 따른 노년기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노년기 활동 유형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증가하는 여가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활용하는 노인 집단과 자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활동 유형 집단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노년기 가치관을 선정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원봉사 활동 집단과 경제활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201명과 219명으로 총420명이 표집 되어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연구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 가지로 가치관 척도는 김재은(1987), 신수진(1998), Triandis(1995), Trompenaars(1996)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고, 삶의 만족도 척도는 윤진(1982)이 개발한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4.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t-test, 일원변량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및 실태와 활동 유형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활동 유형별에 따른 응답비율은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201명(44.9%), 경제활동 집단은 219명(55.1%)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 척도는 모두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가치관의 집단주의 평균은 2.422($SD=.310$)이며, 개인주의 가치관은 평균 2.053($SD=.315$)으로,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26($SD=.38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중간값에 다소 못 미치는 경향성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가치관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인 인식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특성은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김기연, 신수진, 최혜경,2003; 신수진, 1998; 임희섭, 1994; 차재호, 정지원, 1993)와 일치하고 있다. 즉, 전통적 요소로 분류된 집단주의 가치관은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나타나는 특성임이 밝혀졌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활동 유형별 실태를 각각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의 집단은 주 2~3회 참여가 많았으며, 활동의 지속 기간은 보통 3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주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지지의 모습과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도 적극 권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 되었다. 또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네트워크는 주로 노인교실, 복지관 등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동기라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또한 삶의 보람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의 종류로는 주로 노력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인이 보다 의존적인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목욕봉사, 도시락 배달, 호스피스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봉사 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경제활동 집단의 실태로 자원봉사와는 달리 자율적인 선택에 제약이 발생해서 주 5회로 참여하여 3년 이상의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수입은 5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만족감의 수준상태가 보통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을 통해 노인 스스로도 타인에게 권유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활동을 참여하기 위해 소식 및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노인교실, 복지관 등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립적인 생활의 유지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여 동기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었으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이나 직종의 제한 등으로 활성화 되는 못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 조사된 대상자들은 각 활동 유형별 참여 기간이 3년 이상 이었고, 경제활동에 비해 자원봉사의 만족감이 다소 높았으며, 모두 주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 타인에게도 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활동 유형 모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왔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봉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 선행 될 때 보다 활발한 참여와 분야가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제활동도 노인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현상의 부족과 직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여 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을 흡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조직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에 따라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에서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배경 변인 중 성($p<.05$)과 종교($p<.01$)는 개인주의 가치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에서는 성($p<.001$), 종교($p<.05$), 가족형태($p<.05$), 과거 직업($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개인주의 가치관은 남성 노인과 종교가 없는 노인 집단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는 여성 노

인이며, 종교가 있는 노인이고, 독신 집단 보다 3세대 가족형태를 취하는 집단에서, 과거의 직업이 전업주부와 관리직·전문직 직종군에 종사했던 집단이 무직, 생산·단순노무, 일반사무직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가치관에 있어서 주로 남성들의 경험이 집단과 조직을 우선으로 여기는 경제활동을 장기간 수행하여 집단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은퇴와 노화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노년기의 내향성, 조심성, 의존성 등의 증가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교가 없는 경우 종교가 있어 활동하는 노인 집단보다 타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생활과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김명자, 1982; 이우복, 1993; 홍순혜, 1984) 나타난 반면,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선행연구들도 대다수이다(김필례, 2000, 조은영, 2000).

이와 같이 정반대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노인들의 경우 남성 노인들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며, 높은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대한 질적인 활용 기회가 많고, 지역과 타인에 대한 다양한 제공을 통해 얻는 긍정 심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경우에 보다 더 긍정적이며, 자기 평가에 높은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삶에 대한 만족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우복(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노년기에 있어서 종교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가족구성원의 형태로서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의식이 반영된 3세대의 구성이 노년기 노인들에게 있어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거 직업의 경우 상위의 직종군에 속하는 관리직 및 전문직의 경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경제활동 집단의 배경변인에서는 종교($p<.05$)와 가족형태($p<.05$)에서 개인주의 가치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에서는 과거 직업($p<.01$)과 현 직업($p<.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과 2세대의 가족 형태 집단이 3세대와 독신 가족형태의 집단보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업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과거 직업에서는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 직종군에 경험이 있는 집단이 무직을 경험했던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업에 있어서는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 직종의 집단이 전문 강사 직종군의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의 경우 자원봉사 집단과 비교할 때 동일한 결과로서 종교가 없을 노인 집단이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은 두 활동 유형 집단이 종교에 대해 갖는 공통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종교와 관련한 활동은 주로 타인과 지역사회 및 희생이 수반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공통의 이익과 질의 향상을 수반하기 위해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3세대의 가족형태를 취하면서 노인들에게 개인주의 가치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점차 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계획할 수 있는 인식이 노년기에 확산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 인식을 통해 자녀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노년기 활동 유형별 배경 변인,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활동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집단주의 가치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종교와 인지적인 건강 상태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과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집단주의 가치관과 수입, 인지적인 건강 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높고, 인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 유형을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은 높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주보다 집단의 형태를 강조할 수 있는 소그룹 또는 지역별, 연령별, 능력별 등 다양한 집합적 요인이 가능한 활동의 종류가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 가치관보다 집단주의 가치관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노인들이며, 생애 주기 동안 역사·문화·정치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일찍이 체험한 세대가 성장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적인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모 될 수 있는 갈등적 상황이 초래 되었지만, 좀처럼 변화되기 힘든 가치의 특성이 노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회고와 만족감이 젊은 세대에 비해 보다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이루어야 할 새로운 목표와 도전보다 이루어진 삶의 과정들이 축적되고 이를 통해 많은 행복과 성취감을 경험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를 활동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치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득원의 조사 결과 대체로 자녀로부터 지원 받는 생활비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여 자유롭고 타인지향적인 활동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둘째, 각 활동 유형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 집단 모두 개인주의 가치관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경우 남성 노인이며, 종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았고, 여성 노인이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3세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취하며, 과거의 직업이 관리·전문 직종에 종사했을 경우 유의한 차이로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집단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노인, 2세대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취할 때 개인주의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과거의 직업이 무직 이었을 때 보다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에 종사했으며, 현 직업에서는 생산·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관리·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 전문 강사 직업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가치관에 유의한 변인으로 종교가 나타났는데,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개인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의 특성이 공동체 의식을 통한 일체성과 공동의식의 참여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집단적인 요인이 많은 변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업이 유의한 변인으로 과거의 직업은 자원봉사활동에 유의했고,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의 유지로 과거와 현재의 직종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두 활동 유형 모두 집단주의 가치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지적인 건강 상태로 타나

났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는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집단주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증명되어 노년기의 세대는 개별적인 현대적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적인 집단적 가치가 더욱 노인의 삶과 긍정적인 관계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활동 형태를 분석한 유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았고(Lemon, 1972),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는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노년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 활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2002; 조길상,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역시 노년기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을 취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은 사회와 다양한 타인들과의 집단적인 생활과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 등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예비 노인세대와 현재의 노인들에게 권장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저변 확대와 현장의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사 과정을 통해 노인들에게 선호가 많은 직종으로 전문 강사 및

지도교육과 관련한 직종으로 지적되었다.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문 조사 과정 중 현재는 다른 직종에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거나 자신의 능력이 닿는다면 꼭 해보고 싶은 직종의 형태임을 밝혔다. 이 직종의 특성은 비교적 노인들의 신체적 노동성이 덜하며, 자궁심을 함양할 수 있는 신종 노인관련 일자리에 훨씬 높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한문·한글 강사, NIE(news paper education)전문 강사, 생활예절 교육 지도, 댄스(에어로빅)강사, 어학강사(일어, 영어 등) 등으로 조사되었다. 현 직업의 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모색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많음을 조사 과정에서 취득된 바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표집된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종교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노년기에 현재 활동을 하는 집단을 모색하는 과정 중 활발한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체로 종교기관이었으며, 그 밖의 개인적인 모임의 단체, 동호회 등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거주 지역 내 전문 종합복지기관을 통해 자원봉사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나, 일자리 구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생활 범위가 한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를 위한 질문의 응답 요청시 이를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보다 개방적이고, 연구의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이 가능한 기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로 종교 기관이 많이 선택되었다. 그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표집의 비율 80.4%(N=3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확률 표집 방법에 의해 전체 한국 노인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관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별 가치관 조사도구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가치관에 관한 여러 문헌 및 조사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포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가치조사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되어진 가치척도의 도구는 다양한 조사 대상과의 연결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선택의 문제가 고려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형이상학적인 가치의 개념을 노인들에게 측정하는 점은 매우 힘든 사항으로 나타나 간결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노년기 가치관 측정 도구의 개발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 교육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인에게 적절하게 조사 될 수 있는 가치조사의 모형 또는 척도의 구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조사될 수 있는 가치는 주로 전통적 가족가치, 가족주의 등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적합한 도구의 개발 또는 번안되어 사용된 도구의 국내 적용 사례가 드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의 구조화가 추후 연구를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노년기 활동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인 Lemon과 Benson, Peterson(1972)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 정도와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클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오상현, 2001, 류정란, 2002).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활동적일 수 있다면 노년기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두 활동 유형 모두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보다 높은 만족감이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의 성향과 이념, 이데올로기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가치관을 통해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했으며, 현 시점의 국내 노인들의 가치 성향이 분석되었다. 향후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예비 노인으로 접근되는 대상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가치 성향의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년기를 적응할 수 있도록 비전이 제시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수균(2000).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3**(1), 113-137.
- 고수일, 한주희(2003). 급여탄력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회사-구성원 교환관계 및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1**(2), 171-197.
- 고영복(1991).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곽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1), 43-459.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기연(2002).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에 따른 생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기연, 신수진, 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동규(2002). 노인의 종교 및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동배(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개발**. 집문당.
- _____, 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 비수급빈곤, 수급빈곤 여성노인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339-358.

- 김명자(1982). 노인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회**, **20**(2), 29-47.
-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회**, **20**(2), 29-47.
- 김미혜, 서혜경(2002). **노인복지실천론**. 동인출판사.
- _____, 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221-243.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양자(2008).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상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민(2000). 노인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 차이. **한국인구학**, **26**(1), 59-77.
- 김정일, 이관춘(2000). 가치관 조사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3**, 93-117.

- 김주현(2000).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춘택, 박종우(1999).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9**(1), 73-80.
- 김태현(1986). 노인상담의 생활만족도 연구: 발달과업 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23**, 181-200.
- _____(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9**(2), 79-96.
- _____(2007). **노년학**. 교문사.
- _____, 김수정(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9.
- _____, 한은주(200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81-106.
- _____,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2). **한국노년학**, **19**(1), 61-81.
- 김필레(200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순(2003). 노년기 지원제공 활동과 성공적 노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제공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노인복지법(200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haw.go.kr>
- 류정란(2002).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2006).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1999). 도시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 및 경제 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7), 127-141.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가을호, 621-647.
- 박계범(1985).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2004).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 박선희(2005).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주문(1999). 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 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통권 26호, 245-261.
- 박충선(1990).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연구**, **5**(10), 5-20.
- 박태영(1999).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정부간행물.
- 백경숙, 권용신(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백정미(2005). 재택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울경제신문(2002).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서울시 직장인 대상 조사.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_____, 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신은주(1995). 노인자원봉사 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 영, 김대년, 조명희, 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안계춘(1995). 한국 인구의 노령화와 특성. **한국사회학**, **29**, 717-732.
- 양후영(2001). 고령자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들의 노동 시장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경희(2002).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_____(1999). **노인과 여가: 즐거운 노후, 과연 어려운 일인가?**. 김익기 외

-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초록집**.
- 윤명희(2005). 노년기 가치관과 사회활동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혜(1995). 노인의 고독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순덕(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한경혜(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5-77.
- 윤종희, 이해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7(1)**, 289-303.
- 윤주희(1998).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광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금룡(1999).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담론. 모선희 외.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한국노인의 전화,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 _____(2002).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5(2)**, 1-22.
- 이기학(2005). 노년기 가치관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미(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청구논문.

이숙자(2001).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신숙, 이경주(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1-20.

이영기(199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여가태도의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은주(2005).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숙(1998). 노인문제에 따른 사회 적응 활동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국제문화학회**, **3**(21), 119-150.

이정화, 한경혜(2003). 일과 여가활동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2), 209-238.

이종한(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01-219.

이철우, 장 현(1996).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139-150.

이혜자, 성명옥, 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이화연(2001). 국내 외국기업 한국종업원의 집단-개인주의 성향의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계선(200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 :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주영, 전귀연(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87.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장연옥(2001). 현대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4), 87-108.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1996).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49-70.
- _____ (1998). 여성 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3), 74-89.
- 장인협, 최성재(199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미애(1999). 종교와 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계. **종교와 문화**, **5**, 83-98.
- 전지원(2005).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전혜정(2003).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3**(4), 143-161.

- _____ (2004).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6**, 337-361.
- 정경아(2000).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범모(1998).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 정옥희(1994). 노인자원봉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길상(2007).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도: 도서지역과 도시지역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성남(2004).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에이지봄 시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옥희(199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은영(2000).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차재호, 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7**(13), 150-163.
- 최경숙(2006). 노인의 종교성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순남(2002).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 최인영(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지원(200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_____ (2006).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_____ (2007a). **고령자 통계**.
- 한국노년학회(2000).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통계연보**.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정란, 김동배, 원영희, 이금룡(2001). 노인자원봉사의 교육노년학적 의미. *Andragogy Today*. **한국성인교육학회, 4(3)**, 45-67.
- 허준수(2002). 중고령자의 실업 및 노동시장 차별. **KRIVET HRD 정책포럼: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73-102.
- _____ (2004).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 홍달아기, 정은미(2001). 노년기 활동관련 연구의 이론적 고찰. **원광대학교 대**

학원논문집, 27, 247-266.

홍숙자(1992). 한국거주노인과 재미교포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홍순혜(1984). 활동 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Adelmann, P. K.(1994).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 277-285.

Allport, G. W. & Vernon, P. E.(1931). *A Study of Values*. Boston : Houghton Mifflin.

_____. Lindzey, G.(1951). *A Study of Values : A Scale for Measuring the Dominant Interest in Personality*. (Rev. ed.) Boston : Houghton Mifflin.

Atchely, R. C.(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2, 13-17.

_____(1975). Adjustment to loss of job at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6(1). 17-27.

_____(2001). *Social Forces and Aging :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9th ed.). Wadsworth.

Aquino, J., & Russel, Daniel, W.(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80-490.

Bass, S. A., & Caro, F. G.(1996). The economic value of grandparent assistance.

Generations, 2, 29-33.

- Beatty, P. T. & Burroughs, L.(1999). Preparing for an Aging Workforce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5(6), 595-611.
- Berodo, F. M.(1980).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NCFR. Nov.
- Chambre, S. M.(1984). Is Volunteering a Substitute for Role Loss in Old Age?: An Empirical Test of the Activity Theory. *The Gerontologist*, 23, 292-299.
- Chatfield, W. 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1), 593-599.
- Chen, C.(2004).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57-82.
- Choi, NamKee, G.(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ost-retirement Employment among Older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52(1), 45-70.
- Cohen-Mansfield, J.(1989). Employment and volunteering roles for the elderly : characteristics, attributions and strateg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214-227.
- Cumming, E. & Henry, W. E.(1961).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 Edwards, J. N. & Klemmack, D. 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Fischer, B.(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 239-250.

- Fischer, L. R. & Schaffer, K. B.(1993). Older volunteers :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Fischer, L. R. Mueller, D. P. & Cooper, P. W.(1991). Older Volunteers : A Discussion of the Minnesota Senior Study. *The Gerontologist*, 31(2), 183-194.
- Gallagher, S.(1994). Doing their share : Comparing patterns of help given by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567-578.
- Gallaway, E. L.(1965). The Retirement Decision : An exploratory essay.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Gouldner, A.(1970). The Coming Crisis in Western Sociology. New York Basic Books.
- Havighurst, R. J.(1963).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y*, ed. c. Vedder, 111. : Charles C. Thomas Publisher, 67-76.
- _____.(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 David McKay.
- _____, B. L. Neugarten, and S. S. Tobin.(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Neugarten, B. L.(Ed). Middle Age and Aging :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rzog, A. R., R. L. Kahn, J. N., Morgan, J. S. Jackson, and T. C. Antonucci.(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4(4),

129-138.

- Holden, K. C & H. D. Kuo(1996). Complex Marital Histories and Economic Well-Being :The Continuing Legacy of Divorce and Widowhood as the HRS Cohort Approaches Retirements. *The Gerontologist*, 36(3), 383-390.
- Hooyman, N. & A. Kiyak.(1999). *Social Gerontology :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Allyn and Bacon.
- Hui, C. H., & Triandis, H ,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Hunter, K. I., & Linn, M. W.(1980). Psychosocial differences between elderly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3), 205-213.
- Jun, H. J.(2001). Productive role activity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older adult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 Juster, F. Thomas.(1985). Preferences for work and leisure. In F. T. Juster & F.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Ann Arbor, MI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 : Row, Peterson.
- Krause, N.(1987). Chronic Financial 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 185-192.

- _____, Herzog, A. R., & Baker, E.(1992). Providing support to other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47*, 300-311.
- Lemon, B. W., Bengston, W. L. & Peterson, J. A.(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27*.
- Lia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7(1)*, 100-108.
- Luciani, Johnelle.(1993).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Volunteer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Clelland, K. A.(1982).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on an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6)*, 723-732.
- McIntosh, B. R, & Danigelis, N. L.(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affect. *Journals of Gerontology, 50*, 229-239.
- Medl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 Moberg, D. O.(1975). Middle Age and Aging, Religiosity in old age. In B. L. Navigation 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 497-508.
- Mogan, D. L., Schuster, T. L., & Butler, E. W.(1991). Role reversals in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Gerontology, 46*, 278-287.
- Monk, A.(1995). Volunteerism In G. L. Maddox(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Y : Springer Publishing.
- Mroczek, Daniel K. & Spiro Avron III(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 During Adulthood :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Neugarten, B. L., R. J. Havinghurst & S. S. Tobin(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s.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Newman, B. M. & Newman, P. R.(1973). *Development Through Life : A psychological Approach*, revised edition, The Dorsey Press.
- Palmore, E.(1979). Stress and Adap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
- Patterson & Carpenter.(1994). Participation Leisure Activities after Death of a Spouse. *Leisure Science*, 16(2), 105.
- Payne, B. P.(1977). The Older Volunteer : Social Role Continuity and Development. *The Gerontologist*, 17(4), 355-361.
- Perry, R. B.(1954). *General theory of value : Its Meaning and Basic Principles Construed in terms of Intere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iddick, C.(1985). Life satisfaction for older female homemakers, retirees, and workers. *Research on Aging*, 7, 383-393.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 The Free Press. 관리직 · 전문직
- _____.(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francisco : Jossey-Bass.
- _____.(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s : Individual and Societal*. New York : The Free Press.

- Rossi, A., & Rossi, P.(1990). Of human bonding. NY : Aldine de Gruyter.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_____.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Y : Dell Publishing.
- Teaff, J. D.(1985). Leisure Service with the Elderly. NY : Times Mirror/ Mosby College Publishing.
- Triandis, H. C.(1989).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 Boudler San Francisco Oxford.
- Troll, Miller & Atchley.(1979). Families in Later Life.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 Trompenaars, F.(1996). 『국제화와 이문화 적응』 . 삼성인력개발원역.
- Ward, R. A.(1979).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to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4, 438-445.
- Waterman, Alan. S.(1984). The Psychology of Individualism. New York Press.
- Willigen, Marieke Van.(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Journal of Gerontology*, 55(5), 5308-5318.

ABSTRACT

Effects of Value in Elderly on Satisfaction with Life

- An Analysis of Each Activity Type in elderly -

Kwon Mi A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values in each group on satisfaction with life by categorizing the activity types in elderly into voluntary work and economic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elderly who were 60 years old or higher. The questionnaires were categorized depending on activity types and collected. The voluntary work group consisted of 201 people in total (76 males (36.8%) and 125 females (62.2%)). They did not carry out any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voluntary work was not paid. The economic activity group consisted of 219 people in total (127 males and 92 females (42.0%)). They did not carry out voluntary work, and earned income.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index of value was measured by referring to the questionnaires created by Kim Jae-eun (1987), Shin Su-jin (1998), Triandis (1995), and Trompenaars (1996). As for the index of satisfaction with life, the questionnaire was made by using the one developed by Yun Jin (1982). The SPSS 14.0 Window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data in detail.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trends of value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each activity type in elderly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ctivity type groups were as follows: In general, both groups showed a collectivistic value ($M=2.422$; $SD=.310$; Score Range: 31 - 93) more than an individualistic value. Satisfaction with life ($M=2.255$; $SD=.388$; Score Range: 20 - 60) was slightly lower than the intermediate value.

Second, the differences of value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the

factors of each activity type in elderly were as follows: As the background of the subjects, the male elderly without religions had an individualistic value in the voluntary work group. In addition, the female elderly with religions and families consisting of three generations and those who were housewives, the management, or the professional recognized higher satisfaction with life than the unemployed, production workers, laborers, or white-collar employees as past occupations.

In the economic activity group, the elderly with religions and families consisting of two generations and spouses recognized an individualistic value than the one with families consisting of three generations or living alone. As for past occupations, production workers, laborers, white-collar employees, or the professional recognized higher satisfaction with life than the unemployed. As for current occupations, production workers, laborers, white-collar employees, or the professional recognized higher satisfaction with life than professional lecturers.

Third, the effects of the value and factors of each activity type in elderly on satisfaction with life were analyzed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In the voluntary work group, a collectivistic value affected satisfaction with life most. Next, those who had religions and good cognitive health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life. That is, a high collectivistic value, religions, and good cognitive health affected high

satisfaction with life. In the economic activity group, a collectivistic value affected satisfaction with life most. The second and third important factors were income and cognitive health. That is, a high collectivistic value, higher income earned by performing economic activities, and good cognitive health affected high satisfaction with life.

From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proved that a collectivistic value is a common factor that affected satisfaction with life in both of the activity types. Those who were older showed a traditional collectivistic value. The voluntary work group showed a stronger collectivistic value and higher satisfaction with life than the economic activity group. Thus, the diverse types of voluntary work should be developed and a systematic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method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부록1. [가치관 척도의 요인 분석]

요인 (문항수)	설문지 문항 내용	Cronbach's a	
1 집단 주의 (17)	2.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하나에 따라 내 자신의 행복여부가 결정된다.	.799	.798
	3. 비록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785	
	5.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	.786	
	6.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786	
	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곤 한다.	.784	
	9.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783	
	10.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782	
	12. 노부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모셔야 한다.	.799	
	13. 동료의 편안함이 내겐 중요하다.	.778	
	15. 만약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을 돕겠다.	.792	
	16. 만약 부모가 특별한 상을 받게 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785	
	19. 동료가 상을 받는 것은 나의 자랑거리이다.	.779	
	21. 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겐 기쁨이 된다.	.784	
	23. 가족이 승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도 희생할 것이다	.800	
	27. 사람들과 협동하여 일을 진행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782	
	29.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801	
	30. 중요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족 또는 친구들 모두와 의논한다.	.788	
2 개인 주의 (14)	1. 타인과 이야기 할 때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711	.706
	4.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684	
	8.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싫다.	.696	
	11. 나는 타인과 경쟁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681	
	14.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인과 다른, 독특한 나만의 개성을 즐긴다.	.686	
	17. 나는 자주 나만의 일을 한다.	.683	
	18.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674	
	20. 나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한 사람의 개인이다.	.684	
	22. 타인이 나보다 낫다면 나는 긴장과 자극을 느낀다.	.673	
	24. 나는 혼자만의 사생활을 좋아한다.	.706	
	25. 경쟁이 없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685	
26.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709		
28. 단체 활동에서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703		
31.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 능력 덕분이다.	.692		

부록2. [삶의 만족도 척도의 요인 분석]

설문항목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공통성 (communality)	Cronbach's a
		Factor1	Factor 2		
		긍정	부정		
삶의 만족도	만족 1	.659		.460	.896
	만족 2	.565		.368	
	만족 5	.613		.426	
	만족 8	.723		.552	
	만족 9	.768		.644	
	만족 10	.752		.599	
	만족 12	.690		.508	
	만족 13	.769		.592	
	만족 16	.657		.482	
	만족 17	.713		.592	
	만족 3		.685	.482	.866
	만족 4		.709	.511	
	만족 6		.735	.567	
	만족 7		.621	.413	
	만족 11		.580	.381	
	만족 14		.731	.561	
	만족 15		.777	.632	
	만족 18		.685	.518	
	만족 19		.546	.436	
	만족 20		.449	.277	
고유치(Eigen value)		5.250	4.750		
분산설명력(%)		26.252	23.748		
누적분산설명력(%)		26.252	50.000		

부록3. [독립 변인들간 상관관계 : 자원봉사활동]

(N=201)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	1															
2 연령	-.191**	1														
3 교육수준	-.284**	-.244**	1													
4 종교	-.241**	.017	.103	1												
5 결혼상태	.309**	.269**	-.180*	.025	1											
6 수입	-.003	-.155*	.132	.001	.031	1										
7 경제상태	-.125	.202**	-.158*	.170*	.084	.247**	1									
11 건강상태	.135	.047	.000	.324	.366	.284	.003	1								
8 과거직업	-.390**	.040	.411**	.024	-.133	.119	-.105	.251**	1							
9 현 직업	.525**	-.065	-.118	-.140	.107	-.105	.014	.032	.233**	1						
10 가족형태	.073	.285**	-.207**	.033	.235**	-.074	-.037	.173*	-.119	.038	1					
12 가족관계	.231	.337	.776	.460	.376	.811	.015	.036	.510	.027	.482	1				
13 성격	-.035	.086	-.085	.093	-.025	-.113	.092	.125	-.103	.065	-.073	.088	1			
14 거주지	.066	-.045	-.006	-.101	-.135	.096	-.012	.093	.046	.033	-.113	-.100	.055	1		
15 집단주의	.117	.173*	-.157*	-.048	.012	-.087	.031	-.033	.182*	.054	-.189*	.032	.038	-.042	1	
16 개인주의	.035	.161	.497	.104	.240	.050	.104	.293	.188	.573	.305	.769	.467	.000	.011	1

* $p < .05$ ** $p < .01$

부록3. [독립 변인들간 상관관계 : 경제활동]

(N=219)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	1															
2 연령	.018	1														
3 교육수준	-.359**	.005	1													
4 종교	.054	.120	.077	1												
5 결혼상태	.214**	-.050	-.193**	-.003	1											
6 수입	.009	-.058	.176**	.062	-.081	1										
7 경제상태	-.080	.118	-.072	.011	-.110	.024	1									
11 건강상태	-.074	.041	-.013	-.045	-.106	-.110	.276	1								
8 과거직업	-.455**	-.028	.434**	-.051	-.159*	-.030	-.026	-.133*	1							
9 현 직업	-.059	-.056	.237**	.002	-.064	.306**	-.071	-.003	.199**	1						
10 가족형태	.130*	.088	-.277**	-.017	.168*	-.034	.051	.032	-.197**	-.225**	1					
12 가족관계	.293	.849	.208	.193	.040	.475	.291	.005	.300	.907	.210	1				
13 성격	-.027	.065	-.050	-.047	-.118	-.063	.004	.138*	-.010	.086	.075	.148*	1			
14 거주지	-.172**	.084	.113	-.032	-.040	.071	-.045	.040	.130*	.299**	-.081	.025	-.057	1		
15 집단주의	.069	-.024	-.058	-.054	-.133	.022	.008	-.036	.041	.033	-.103	.066	-.010	-.027	1	
16 개인주의	-.064	-.048	.085	.021	-.100	.150*	.033	-.008	.021	.038	-.102	.022	-.107	-.024	.206**	1

* $p < .05$ ** $p < .01$

부록4. [설문지]16)

ID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노년기 활동 유형이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관이 작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 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 태 현
연구자 권 미 애

설 문 지

조사 작성일	2008년 월 일	조사 연구원	
조사 지역 (장소, 기관)			

16) 본 연구에서 구성된 질문지는 활동 유형 별로 각각 구성되어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지면의 관계로 공통으로 응답해야 하는 문항과 활동에 따라 다르게 응답해야 하는 선택 문항으로 간소화하였음.

공통 문항

I.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졸업에 중퇴도 포함**)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졸업 ⑥ 대학졸업 ⑦ 대학원 이상

4. 귀하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시 거주 ② 서울시 외 거주
③ 국외 거주 ④ 전문시설기관(요양원, 전문노인복지시설 등)

5. 귀하의 성격은 주로 어떠십니까? ① 외향적 ② 내향적

6. 귀하의 과거 직업은 무엇 이였습니까?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상업서비스(자영업 등) ④ 일반사무직(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⑤ 관리직(간부, 고급 공무원, 군인 등) ⑥ 생산직, 단순 노무직, 숙련기술직
⑦ 전문직(의사, 약사,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⑧ 농업, 임업, 광업

7. 귀하의 현 직업은 무엇입니까?¹⁷⁾

- ① 무직
- ② 전업주부
- ③ 상업서비스(자영업 등)
- ④ 일반사무직(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 ⑤ 관리직(사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군인 등)
- ⑥ 생산직, 단순 노무직, 숙련기술직 등
- ⑦ 전문직(의사, 약사,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 ⑧ 농업, 임업, 광업
- ⑨ 전문지도 및 교육 강사(한문, 한글, 예절, 댄스 등)

8. 귀하의 월평균 수입(용돈 포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없다¹⁸⁾
- ② 50만원 이하
- ③ 50-100만원
- ④ 101-150만원
- ⑤ 151-200만원
- ⑥ 201-300만원
- ⑦ 301-500만원
- ⑧ 500만원 이상

9. 귀하의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높다

10. 귀하의 가족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조부모 + 부부(본인) + 자녀
- ② 부부(본인) + 기혼자녀
- ③ 부부(본인) + 기혼자녀 + 손자녀
- ④ 부부(본인) + 미혼자녀
- ⑤ 부부
- ⑥ 독신
- ⑦ 부부(본인) + 손자녀
- ⑧ 부부(본인) + 친인척
- ⑨ 공동체 생활로 여러 타인들과 함께

17) 선별적 응답 : 자원봉사집단은 ①, ②번 해당, 경제활동 집단은 ①, ②번 제외

18) 경제활동 집단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1. 귀하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원만하지 않다 ② 원만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원만하다 ⑤ 매우 원만하다

1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다 ② 불교 ③ 유교
④ 천주교(카톨릭) ⑤ 기독교

13. 귀하는 종교 활동(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가끔씩 참여 한다
③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1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재혼

1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가끔씩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공통 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인과 이야기할 때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내 주위 사람들의 행복하냐에 따라 내 자신의 행복여부가 결정된다.			
3. 비록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4.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5.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			
6.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곤 한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싫다.			
9.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10.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1. 나는 타인과 경쟁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12. 노부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모셔야 한다.			
13. 동료의 편안함이 내겐 중요하다.			
14.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인과 다른, 독특한 나만의 개성을 즐긴다.			
15. 만약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을 돕겠다.			
16. 만약 부모가 특별한 상을 받게 된다면 자칫 부모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18.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Ⅲ. 다음은 귀하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2. 일상생활에서 매우 원기가 왕성하다.			
3.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4.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5.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자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6.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7. 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다.			
8.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9.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11.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12.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일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13.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흥미롭다.			
14. 나에게서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15.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16.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7. 나는 현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18. 일생동안 지금이 가장 처량하고 울적한 때이다.			
19. 내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지루하고 단조롭다.			
20.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Ⅲ. 다음은 귀하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문항

Ⅲ. 다음은 귀하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한 달에 1~2회 ② 2주에 1회 ③ 1주에 1회 ④ 1주에 2~3회 ⑤ 1주에 5회

2. 현재까지 자원봉사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처음 ② 1~6개월 미만 ③ 7~12개월 미만 ④ 1~2년 미만 ⑤ 2~3년 미만 ⑥ 3년 이상

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의 지식,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② 새로운 지식, 경험을 얻기 위해서
③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④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⑤ 과거 봉사경험이 좋아서 ⑥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⑦ 종교적 신념의 실천으로 ⑧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친구사귀기)
⑨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⑪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4.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까?

- ① 매스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② 노인교실, 복지관 등 참여기관을 통해서
③ 자원봉사 경험자의 권유로 ④ 가족, 친지, 친구 등의 권유로
⑤ 스스로 단체, 기관 등 방문 ⑥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

5.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각종 상담활동(전화, 학부모, 청소년, 치매노인, 기관 안내데스크 등)
 - ② 말벗도우미 활동(치매 환자, 노인, 독거노인 등)
 - ③ 각종 교육지도의 전문 강사활동(종교, 한문, 한글, 예절, 댄스, 외국어 등)
 - ④ 경로당, 요양원 등 방문활동 ⑤ 노력봉사 활동(호스피스, 환자 간호, 도시락배송, 목욕도우미 등)
 - ⑥ 지역사회활동(환경미화, 보호, 교통정리 등)
6. 현재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만족스럽지 못함 ② 보통이다 ③ 만족스럽다
7. 주위에 다른 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해 본적이 있거나 또는 권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과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① 적극적 지원 ② 관심이 없다 ③ 중단요청
9.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삶의 보람 ② 폭넓은 대인관계 ③ 여가시간 활용
 - ④ 자신의 성숙과 발전에 도움 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로움 ⑥ 생활의 활력 얻음
10. 귀하께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하지 못해서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활동하는 곳을 몰라서
 - ④ 정부, 관련 기관의 활용의지 부족 ⑤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몰라서 ⑥ 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 ⑦ 봉사의식과 책임감 부족 ⑧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선택 문항

IV.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한 달에 1~2회 ② 2주에 1회 ③ 1주에 1회 ④ 1주에 2~3회 ⑤ 1주에 5회

2. 현재까지 경제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처음 ② 1~6개월 미만 ③ 7~12개월 미만 ④ 1~2년 미만 ⑤ 2~3년 미만 ⑥ 3년 이상

3.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1개월 기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0만원 이하 ② 51~100만원 ③ 101~200만원 ④ 200만원 이상

4.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의 지식,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② 새로운 지식, 경험을 얻기 위하여
③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하여 ④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⑤ 돈(용돈)을 풍족하게 쓰고 싶어서 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⑦ 생계유지(생활비 마련)를 위해 ⑧ 가족, 자녀들에게 의지하기 싫어서

5.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습니까?

- ① 매스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② 노인교실,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
③ 취업박람회, 지역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해 ④ 가족, 친지, 친구들의 소개로

⑤ 기업의 재고용으로 인해

⑥ 개인 경영의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6. 현재 활동하시는 경제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만족스럽지 못함 ② 보통이다 ③ 만족스럽다

7. 주위에 다른 분들에게 경제활동을 권유해 본적이 있거나 또는 권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경제활동에 대한 가족과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① 적극적 지원 ② 관심이 없다 ③ 중단요청

9. 귀하께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삶의 보람 ② 폭넓은 대인관계 ③ 여가시간 활용
④ 자신의 성숙과 발전에 이로움 ⑤ 신체, 정신적 건강의 이로움 ⑥ 경제적 이득
⑦ 가족 내 자신의 위치, 역할 유지

10. 귀하께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하지 못해서 ② 정부, 기업의 채용 및 인력활용 의지
③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 인식 부족 ④ 능력과 기술 등의 부족 때문
⑤ 일할 수 있는 현장, 직종 부족